

# 2026 튀르키예 진출전략

진출 환경  
시장 분석  
진출전략



# Contents

---

##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04
2. 정치(정책) 환경	07
가. 정부 현황	07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07
3. 주요 이슈 Pick	11
가. (경제) 인플레이션 완화와 통화정책의 전환 신호	11
나. (정치) 민생 회복 및 수출 중심의 정책적 연속성 유지 전망	11
다. (산업) 유럽과의 방산·에너지 협력 확대	11
라. (외교) 중동 외교 구도 재편 : 시리아·이라크와의 협력 구조화	12
마. (산업) CBAM 대응 및 녹색 수출 산업 재정비	12

---

##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14
가. 시장 특징	14
나. 무역	16
다. 산업	23
라. 투자	24
2. 유망 산업	29
가. 방위 산업	29
나. 원자력 산업	31
다. 뷰티·화장품 산업	32
라. 의료·바이오테크 산업	33
3. 협력 기회	36
가. 통상·G2G	36
나. 프로젝트	37

---

##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41
2. 진출전략	43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상품)	52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서비스)	56
첨부 3.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58
첨부 4.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59

# I . 진출 환경

- |               |    |
|---------------|----|
| 1. 경제 환경      | 04 |
| 2. 정치(정책) 환경  | 07 |
| 3. 주요 이슈 Pick | 11 |

# I 진출 환경



## 1. 경제 환경

### □ 경제 전망

- (상승) 인플레이션 억제 및 통화정책 완화 사이클 가동
  -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3%p 인하했으며, 연말 인플레이션 예측 범위(19~29%) 내에서의 물가 수준 유지 및 '26년 인플레이션 20% 이하 진입 예상
  - 다만 금융기관\*은 '25년 연말 기준 인플레이션을 30%대로 전망하고 있으며, 기준금리 또한 30% 후반으로 예상
- \* CITI 은행, BBVA 리서치,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등

### □ 호재 요인

- 최근 물가 동향
  - '25년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33.5% 상승하여, '21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
  - 주요 핵심 인플레이션 구성 요소가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며, 7월 기준 생산자 물가의 월간 상승률은 올해 최저치를 기록
- 미국의 튀르키예 관세율 소폭 인상
  - 미국은 튀르키예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15%로 인상하였으며, 이는 최근 시행된 관세 조치 대상국 중 가장 낮은 수준
  -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비해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며, 튀르키예 내 생산되는 对미 수출 품목의 가격 경쟁력 확보

### □ 부진 요인

- 기업 파산 및 회생 신청 급증
  - '25년 상반기 기업회생 판결 822건, 법원 명령에 따른 파산은 553건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36%, 101% 증가
  - 기업회생 결정은 관련 기업에 영향을 미쳐 연쇄 파산 유발 가능성 존재

- 대기업, 부채 상환보다 유동성 확보 우선
  - Zorlu Holding은 부채를 재융자하여 전체 차입금 중 단기 부채 비중을 60%에서 40%로 조정
  - 기업들은 주로 상환 기간 연장과 부채 일부 상환을 목표로 대출 구조조정 추진 중

## □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인구	백만 명	83.2	83.6	84.7	85.3	85.4	85.6	87.7	87.9
명목 GDP	십억 달러	761.0	720.3	819.9	907.1	1,118	1,323	1,510	1,615
1인당 명목 GDP	달러	8,915	8,367	9,458	10,420	12,814	15,325	17,200	18,364
실질 성장률	%	0.8	1.9	11.4	5.5	5.1	3.3	2.8	3.8
실업률	%	13.8	13.2	12.0	11.3	9.4	8.7	8.5	8.8
소비자물가 상승률	%	11.5	14.3	36.1	64.3	64.8	44.4	34.5	23.6
재정수지(GDP 대비)	%	-2.9	-3.5	-2.8	-1.0	-5.2	-4.9	-3.4	-2.5
총 수출	백만 달러	180,833	169,638	225,214	254,170	255,627	261,778	263,121	272,704
(對韓 수출)	백만 달러	943	1,103	996	1,051	1,041	971	n/a	n/a
총 수입	백만 달러	210,345	219,517	271,426	363,711	361,967	344,010	326,109	338,565
(對韓 수입)	백만 달러	5,777	5,734	7,597	9,004	9,488	9,246	n/a	n/a
무역수지	백만 달러	-29,512	-49,880	-46,211	-109,541	-106,339	-82,232	-62,988	-65,861
경상수지	백만 달러	15,014	-31,976	-6,221	-46,283	-39,877	-9,973	-25,388	-24,530
환율(연평균)	현지국/US\$	5.67	7.01	8.85	16.55	23.74	32.81	39.38	44.69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30	33	65	49	60	66	54	56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48	75	127	138	107	113	136	123

주: '25년은 추정치, '26년은 전망치 기입

자료: 터르키예 통계청, 터르키예 중앙은행, EUI('25년 9월 16일 기준)

## □ 현지 경제 상황

- 경제성장률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및 EUI는 '25년 연간 성장률을 2.9%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4년 3.2% 경제성장률에 비해 '25년에는 둔화한 성장세 예상
  - 산업 분야별로는 건설·서비스 부문이 성장을 견인한 반면, 산업·농업 부문의 성장은 기후 문제 등의 영향으로 위축됨
  - '25년 말부터는 총선을 앞둔 경기부양책이 경제활동을 추가로 지원할 가능성이 있으며 물가 하락, 금리 인하, 글로벌 경제 여건 개선에 힘입어 '26년 성장률은 3.3%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물가 불안, 환율 변동성, 대외 자금 의존도 등의 구조적 위험 요인들이 잔존하여 성장에 부정적인 전망을 시사함

- 소비

- 높은 물가와 차입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소비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전년 대비 감소
- '25년 1분기 민간 소비는 2.0% 증가하여 경제성장률에 1.6%p 기여하였으며, 정부 소비는 추가로 0.2%p를 기여한 것으로 관찰됨
- 긴축적 통화정책과 실질소득 감소의 영향으로 소비에 대한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여 소비 부문의 전체적인 경제 성장 기여도는 '24년 대비 감소

- 민간 투자

- 건설 부문 중심의 투자 증가세 속 기계·장비 부문은 고금리 영향으로 인해 둔화
- '25년 1분기 총고정자본형성은 2.1% 증가하였으며, 이는 건설 투자 부문이 6.9% 증가한 데에 주로 기인함
- 기계·장비 부문의 투자는 1.8% 감소하였으며, 이는 고금리로 인한 자금조달 비용 상승과 함께 민간 부문의 신중한 투자 심리를 반영함

- 산업생산

- '25년 6월 기준,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7%, 전년 동월 대비 8.3% 증가하였으며, 구체적인 산업 분야별로는 하이테크 제조업 생산이 전년 동월대비 88.2%, 전월 대비 38.1% 증가하며 섬유 등 전통 제조업 부문의 지속적인 약세 및 위축과 대조되는 양상 보임
- '25년 8월 기준, 제조업 설비 가동률은 계절 조정 기준 73.6%로, 지난 5월 75.1%의 고점 이후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동차, 가죽, 기계, 전자, 섬유 등의 분야에서 특히 저조

- 대외 교역

- '25년 1분기 순수출은 수입 증가와 수출 정체의 영향으로 GDP 성장률은 0.6%p 감소하였으며, 글로벌 무역 갈등의 영향과 국내 수출 제조업 부문의 침체로 인해 지속적인 수출 둔화 예상
-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수요 부진과 수입 확대가 지속되면서, '25년과 '26년에도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부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투자 유입

- '21년 이후, 튀르키예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및 HIT-30과 같은 투자 정책의 활발한 시행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 추세
- 주요 투자국은 네덜란드, 독일 등의 EU 국가와 러시아, UAE 등의 인접국가로 확인됨

- 투자진출

- '25년 1~7월까지 튀르키예의 해외 투자 진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으며, 제조업과 부동산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추세
- 운영비 상승,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중공업에 미치는 압력, 고물가로 인한 에너지 및 원자재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많은 제조업체들이 유럽과 이집트를 중심으로 새로운 해외 생산 거점을 구축

## 2. 정치(정책) 환경

### 가. 정부 현황

□ 정치적 안정성은 차기 대선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 최근 정세 변화로 인해 새로운 불확실성이 대두됨

- 에르도안 대통령은 '28년 대선까지 집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3년 5월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집권 여당 정의개발당(AKP)의 지지 기반 견고에 기인
  - '23년 대선 이후 대통령 중심제는 사회적 불안 가능성은 일정 부분 완화했으나, '24년 지방선거 이후 정치적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는 경향 보임

###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 (중장기 정책) 제12차 경제개발계획(2024~2028)

- '안정적(Stable)이고, 강력한(Strong)하며, 풍요로운(Prosperous) 튀르키예'를 모토로 삼음
  -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 계획을 통해 튀르키예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전 세계적인 경제·정치적 불균형이 가져올 수 있는 위협 해소를 목표로 한다고 밝힘
- 튀르키예를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2053 비전과도 일맥상통
  - 2053 비전은 1453년 오스만 제국의 콘스탄티노플 정복 600주년을 기념하며, 튀르키예가 글로벌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제12차 경제개발계획 분야별 주요 내용

분야	목표	주요 내용
인적자원	능력 있는 인재, 강한 가족, 건강한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 교육의 전국 확산</li> <li>• 학생들을 위한 개인연금제도(BES) 참여 장려</li> <li>• 소득 수준에 따른 사회보험 강화</li> </ul>
경제	안정적인 성장과 강력한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업률 7.5%로 감소</li> <li>• GDP 2WH 8,200억 리라 달성을</li> <li>• 연평균 5% 경제성장을 유지</li> </ul>
산업 전환	경쟁력 있는 생산과 녹색 및 디지털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 배출 제로('53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li> <li>•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 증대</li> <li>•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 촉진</li> </ul>
환경	재해에 강한 생활공간과 지속가능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내진설계 적용 주택 대량 공급</li> <li>• 에너지 허브로서의 역할 강화</li> <li>• 자연재해 대비 도시 계획</li> </ul>

분야	목표	주요 내용
거버넌스	정의 기반의 민주적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부문에서 유연 근로 모델 도입</li> <li>공공기관 채용 및 임명 과정 공정성 보장 위한 시험시스템 도입</li> <li>저소득층을 위한 소비자 지원 제도 도입</li> </ul>

자료: 투르키예 대통령실 전략예산위원회 제12차 경제개발계획

### □ (중기 정책) 제13차 중기 경제 프로그램(2026~2028)

- 중앙 정부 예산 편성 과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 거시 경제 목표를 제시, 공공·민간 부문의 정책 추진 방향 예측의 토대가 됨
  - 대통령 산하 기획예산국과 재무부가 매년 3개년 관점에서 경제·사회 분야의 정책과 원칙을 대통령령으로 수립·발표
- 거시 경제 및 금융 부문의 안정을 강화하고,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 한 자릿수까지 감소가 목표
  - (성장) 수요 회복이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을 지원해 '28년 5.0% 성장 달성을 추진
  - (고용) 새로운 근무 형태 도입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강화하는 한편, 녹색·디지털 전환 수요에 부합하도록 조정 필요
  - (물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통화, 재정, 소득 정책 시행

### 중기 경제 프로그램 경제 규모 예측과 목표

	구분	2024년	2025년 (예측)	2026년 (MTP 목표)	2027년 (MTP 목표)	2028년 (MTP 목표)
성장	GDP 성장률	3.3%	3.3%	3.8%	4.3%	5.0%
	1인당 GDP(달러)	15,325	17,748	18,621	19,710	20,987
고용	노동 참가율	54.2%	53.7%	54.4%	55.1%	56.0%
	실업률	8.7%	8.5%	8.4%	8.2%	7.8%
연간 인플레이션		44.4%	28.5%	16.0%	9.0%	8.0%
경상수지적자(GDP 대비)		-0.8%	-1.4%	-1.3%	-1.2%	-1.0%
공공수지적자(GDP 대비)		-4.7%	-3.6%	-3.5%	-3.1%	-2.8%

자료: 투르키예 재무부

## □ '30년 산업기술전략(2025~2030)

- 국가 기술 이니셔티브(National Technology Initiative)의 비전 아래 수립된 '2030 산업 및 기술 전략'은 튀르키예를 첨단기술 제품의 생산·수출 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시키고, 산업·기술 자립성 강화를 목표
  - ▲ 첨단기술, ▲ 디지털 경제, ▲ 녹색 전환, ▲ 글로벌 통합, ▲ 구조적 전환 등 5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기적인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대 거시 목표와 100대 전략과제 제시
- 핵심 목표는 첨단기술 수출을 3배 확대하여 300억 달러 달성을, 중고기술 수출은 2배 확대하여 1,800억 달러 달성을하는 것
  - (전략산업) 방위 산업,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테크, 헬스케어,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산업에 집중하며, HIT-30 프로그램, 기술 중심 산업 도약 프로젝트, 국가 반도체 컨소시엄 등을 통해 국내 생산역량을 강화할 계획
  - (이중용도 기술과 신산업) 무인 시스템, KAAN 전투기, 통합 방공 플랫폼 등 국방 분야 기술의 R&D (연구개발)를 지속하며,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 사이버보안, 유전체 분야의 국가 인프라를 국가양자기술연구소, 원자력 테크노파크 등의 기관 중심으로 강화·연계하여 슈퍼컴퓨팅 투자 프로그램도 추진
  - (디지털·녹색 전환) 디지털 인프라 확대, 산업용 로봇 20만 대 보급, 국산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등이 추진되며,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원자력, 순환경제 모델 확대와 함께 스마트 공급망 구축도 병행
  - (물류 현대화 및 무역회랑) 개발 도로 프로젝트(Development Road Project), 잔게주르 회랑 (Zangezur Corridor) 등 주요 인프라 사업을 통해 공급망의 회복력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철도-항만-공항 통합형 운송 시스템, 블록체인 기반 통관 플랫폼, 디지털 물류 솔루션에 대한 투자 확대
  - (원자재와 전략 자원 확보) 3D 지질지도, 위성 영상, 재활용 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전략적 자원의 접근성을 강화하며, 제이한 석유화학 단지(Ceyhan Petrochemical Zone)를 전 세계 원자재·석유화학 가공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

## 20230 산업기술전략의 주요 거시 지표

구분	기준값(기준 연도)	2030 산업기술전략
GDP 대비 제조업 비율	21.25%('21~'23)	23%('28~'30)
글로벌 제조업 시장 점유율	1.33('23년)	1.65%
미디엄-하이테크 산업 수출	92.36('24년)	1,800억 달러
하이테크 산업 수출	8.8('24년)	300억 달러
수출 규모 50억 초과 기업 수	1('23년)	10개사
GDP 대비 R&D 투자 비율	1.42('23년)	2.2%
산업단지(1,000ha) 수	149.1('24년)	350개
중소기업의 대기업화	253('23년)	1,000개사
벤처캐피탈 투자	5('19~'24년)	200억 달러('25~'30년)
기술 분야 스타트업(1,000)	11('24)	100개사
산업용 로봇(누적/1,000)	26.41('23년)	200대

자료: 터르키예 에너지·천연자원부

## □ (ESG) 개별 기업의 자율에서 체계화·법제화된 규제로의 변모

- 터르키예 지속가능성 재무제표 기준(TSRS, Türkiye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이 '24년 1월부터 발효되어 기존 기업의 자발적 의사로 발표되던 지속가능성 회계보고서를 의무사항으로 바꿈
  - TSRS Section1(지속가능성 일반 총칙) : 지속가능성과 연계된 모든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
  - TSRS Section2(기후변화 연계 정보 공개) : 기후변화와 연계된 사업 리스크와 기회요인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
- 보르사 이스탄불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과 자산 5억 리라(약 1만 2,000달러) 이상, 매출 10억 리라(약 2만 4,000달러) 이상, 또는 종업원 250인 이상인 기타 법인은 의무 보고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
- '25년 7월, 터르키예는 첫 번째 기후법을 제정하였음. 이 법은 배출 감축, 기후 적응 및 지방 차원의 협조를 위한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으며, 각 도(省)마다 도지사 주도로 기후변화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 또한, 배출권 거래제(ETS), 자발적 탄소시장, 그리고 글로벌 탄소 가격 기준에 부합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법적 기반 등 주요 메커니즘을 도입함

### 3. 주요 이슈 Pick

#### 가. (경제) 인플레이션 완화와 통화정책의 전환 신호

□ (물가 안정세) '24~'25년 동안 고금리 기조를 유지한 결과, '26년에는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30% 이하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

- 심세크 재무부 장관은 '25년 하반기 기준 "인플레이션이 구조적 하향세에 진입했다"고 평가하며, '26년부터 점진적인 금리 인하 여력이 생겼음을 시사
  - (금리 동결 구간 진입) '25년 중반 이후 기준금리 50%를 유지하며 통화 안정성 확보에 주력
  - (소비 회복 기대) 고금리로 위축됐던 내수 소비와 기업 투자 활동이 '26년 중반부터 완만하게 회복세 전환 전망

□ (신용 신뢰 회복) '25년 신용등급 상향에 이어, 국제 금융시장에서 튀르키예 리라화 자산에 대한 신뢰도 상승 중

#### 나. (정치) 민생 회복 및 수출 중심의 정책적 연속성 유지 전망

□ 긴축적 통화 정책 하에서 민생 회복 지원 우선, 수출 중심의 기조 유지 및 외국인 유치에 중점

□ (정책 연속성) 정치적 역동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외교 정책은 연속성 유지

- '개방적 외교+친시장 개입' 전략이 중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
- EU와의 협력 확대적 외교정책 유지, EU SAFE(공동 방위 조달 프로그램) 가입 자격을 획득하며 새로운 협력 채널 개설

#### 다. (산업) 유럽과의 방산·에너지 협력 확대

□ (방산 파트너십) '25년 중반부터 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국가들과 합동 방산 프로젝트 및 기술 교류 확대

- 튀르키예 방산 기업 ASELSAN, ROKETSAN 등과 유럽 방산 대기업 간 합작 개발 및 수출 허용 확대 협정 체결
  - 대표 사례 : 튀르키예-이탈리아 공동 방공시스템 개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공동 표준 무기체계 연동 협약 체결

□ (에너지 전환 협력)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유럽 그린딜 기금의 공동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협상이 진전

- 태양광·풍력 프로젝트에 EU 투자은행, KfW(독일부흥은행) 등이 파트너로 참여할 가능성

**라. (외교) 중동 외교 구도 재편 : 시리아·이라크와의 협력 구조화**

□ (시리아) '25년 말부터 난민 귀환, 국경 안정화, 인프라 재건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시리아와의 국경 안정화 대화 채널 재개

- '25년 5월, Kalyon Holding과 Cengiz Holding이 카타르 UCC, 미국 Power International과 함께 시리아 내 7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인프라·교통 분야 투자 계약 체결

□ (이라크) 개발도로 프로젝트(Development Road Project)의 진전과 함께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정치적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는 구조 형성

- '26년에는 터르키예-이라크 자유무역지대(FTZ) 지정 논의 착수 예정
- 터르키예-이라크 원유 파이프라인 협정이 '26년 7월 만료 예정인 가운데, 양국은 석유, 가스, 석유화학, 전력, 무역 전반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에너지 협력체계에 대한 협의 시작

**마. (산업) CBAM 대응 및 녹색 수출 산업 재정비**

□ (CBAM 도입 대응)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6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터르키예 정부의 유럽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및 체계 정비 가속화

- '25년 7월, 터르키예 의회는 '기후법(Climate Law)'을 제정하며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조치, 국내 배출권거래제(ETS)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은 기후변화청에서 배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년 검증된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반납
-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화학 등 고탄소 업종의 유럽 수출 시 탄소 배출 인증 및 거래비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터르키예 수출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이 수출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

##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14
2. 유망 산업	29
3. 협력 기회	36

# II 시장 분석



## 1. 시장 현황

- 유럽, 중동, 러시아, 중앙아시아가 만나는 지리적 요충지
- 규모 있고 역동적인 내수시장
- 화학, 철강, 자동차 부품 등 수입 수요 지속적 확대

### 가. 시장 특징

#### □ 유럽, 중동, 러시아, 중앙아시아가 만나는 지리적 요충지

- 경제적으로는 유럽, 종교적으로는 중동, 자원·에너지는 러시아, 문화적으로는 중앙아시아와 연결

지역	특징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불가리아, 그리스 등과 국경을 접할 만큼 지리적으로 인접</li><li>EU와 관세동맹 형성</li></ul>
중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인구의 99%가 무슬림</li></ul>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서방의 對러시아 제재에 미동참, 아크루우 원전 건설 등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li></ul>
중앙아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튀르키예 주도로 튀르크어권기구(OTS) 출범('09년)<ul style="list-style-type: none"><li>튀르키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참여</li></ul></li></ul>

#### □ 규모 있고 역동적인 내수 시장

- (경제 규모) 1조 달러가 넘는 GDP를 기록하여 세계 20위권 경제 규모를 시현하고 있으며, 이는 네덜란드와 비슷한 수준

#### 튀르키예와 기타 국가 경제 규모

(단위: 억 달러)

국가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튀르키예	807.9	905.8	1,130.1	1,322.4	1,437.4
네덜란드	1,055.2	1,047.4	1,154.7	1,227.2	1,272.0
사우디아라비아	874.2	1,108.6	1,067.6	1,085.4	1,083.7
폴란드	689.3	295.7	809.7	908.6	980.0

자료: IMF(국제통화기금, '25년 9월 18일)

### □ 화학, 철강, 자동차 부품 등 수입 수요 지속적 확대

- 중간재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제조·수출하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부품과 소재 수입 수요가 상존
- 한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로부터 화학제품, 철강, 자동차 부품 등 소재와 부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제작해 유럽으로 수출하는 산업 구조로 경제가 운영
  - 이 같은 산업 구조로 인해 차량, 의류 등 주요 제조업 제품에 대해 영국,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등 주요 유럽 국가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데 비해 부품, 장비 등 완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중간재에 대해서는 중국, 베트남, 일본 등 주요 아시아 국가와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화학, 철강, 자동차 부품 등 수입 수요가 꾸준히 확대

### 튀르키예 주요 품목·국가별 무역수지 흑자

(단위: 백만 달러, %)

품목	국가	2022년	2023년	2024년
차량 (HS 87)	영국	2,566	1,892	2,689
	이탈리아	1,396	1,268	1,894
	슬로베니아	1,011	1,241	1,704
의류 (HS 61)	독일	2,201	1,883	1,854
	스페인	1,070	1,002	1,059
	영국	1,340	1,049	1,046

자료: Global Trade Atlas('25년 9월 18일)

### 튀르키예 주요 품목·국가별 무역수지 적자

(단위: 백만 달러, %)

품목	국가	2022년	2023년	2024년
보일러 기계류 (HS 84)	중국	-8,818	-10,624	-9,795
	독일	-2,584	-3,409	-3,349
	이탈리아	-2,246	-2,738	-2,703
전기기기 (HS 85)	중국	-8,979	-12,222	-11,526
	베트남	-796	-988	-903
	일본	-761	-837	-834
철강 (HS 72)	중국	-3,459	-3,296	-3,160
	러시아	-4,696	-3,214	-2,565
	미국	-1,326	-1,806	-1,814
	한국	-1,358	-1,656	-1,508

자료: Global Trade Atlas('25년 9월 18일)

## □ 주요 인증

- 튀르키예의 인증과 수입 규제는 대체적으로 EU 규정과 높은 정책적 정합성 유지
  - 기계·장비류 : 독립된 인증기관을 통해 별도 인증서를 발급하는 CE 인증 필수
  - 화장품·의료기기 : 수입업체가 UTS(제품추적시스템) 포털에 제품 등록 필요
  - 식품류 : 농림부 포털을 통해 식품통제증명서(Food Control Certificate) 발급 필요, 통관 시 GMO (유전자변형식품) 관련 검사를 포함한 샘플 재검사 통과 필요하며 GMO 검사 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관련 성분이 식별될 경우 해당 화물은 반입 불허

## 나. 무역

### □ 수출입 동향

- (수출 규모)
  - '23년 글로벌 경기둔화 및 외부 수요 약화 등의 영향으로 역외 수출 0.6%의 소폭 증가를 보였으나, '24년에는 2.4% 증가를 통한 회복세를 보임
  - 전반적으로 수출은 고부가가치 품목과 하이테크 산업의 성장으로 점진적 회복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전망
- (수입 규모)
  - 에너지 수입 가격 상승, 내수 소비 확대, 원자재 수요 증가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역외 수입이 최근 가파른 상승세 기록
  - 환율 안정, 산업 재고 보충 수요, 에너지 수입 단가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수입 구조의 질적 개선이 튀르키예의 무역정책 핵심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

### 튀르키예 역외 수출입 규모 동향

(단위: 십억 달러, %)

	2023년		2024년		2025년 7월 누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역외 수출	225,659	0.7	261,655	2.4	156,310	5.1
역외 수입	362,189	-0.3	343,727	-5.1	212,680	7.2
무역수지	-106,530	-2.4	-82,072	-23.0	-56,370	13.3
총 교역	617,848	-0.1	605,382	-2.0	368,990	6.3

자료: Global Trade Atlas('25년 9월 30일)

## □ 주요 수출국 및 수출 품목

- (수출국) '24년 8월 누계, 튀르키예의 주요 수출시장은 EU와 중동 국가
  - 수출 대상국은 EU 42.3%, 중동 16.6%, 기타 유럽 14.9%, 아시아 7.9% 순
- (수출 품목) 주력 수출 품목은 자동차, 기계류(가전, 기계 부품), 철강, 의류 등으로 10대 주력 제품의 수출 비중이 전체 58.5% 차지
  - '24년 8월 누계 기준, 10대 수출 품목 중 자동차, 기계류 부품, 전력기자재, 철강, 광물류는 증가한 반면, 의류 품목은 감소

## □ 주요 수입국 및 수입 품목

- (수입국) '24년 8월 누계, 튀르키예의 주요 수입국은 EU와 아시아
  - 수입 대상국은 EU 32.4%, 아시아 25.1%, 기타 유럽 20.0%, 중동 5.4% 순
- (수입 품목) 주력 수입 품목은 광물, 기계류, 차량 부품, 항공기 부품, 철, 귀금속류 등
  - '24년 8월 누계 기준, 10대 수입 항목의 대부분은 감소하였으나, 항공기 부품 수입은 팬데믹 이후 글로벌 항공기 유지보수 수요 증가 및 튀르키예 항공사들의 신규 항공기 도입으로 수입 증가

## □ 對韓 교역 동향

- (교역)
  - 한국-튀르키예 간 교역은 '13년 FTA(자유무역협정) 발표 이후 꾸준한 확대세를 보여 왔으며, 특히 기계류,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제품 등 중간재 중심의 교역 구조가 특징적
  - 한국 기준으로 수입보다 수출 비중이 높은 흑자 구조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한국-튀르키예 간 FTA 서비스·투자 분야 확대 논의와 유럽·중동 시장을 연계한 전략적 협력 강화에 따라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지속적 확대 전망
- (교역 규모)
  - (수출) '24년 對튀르키예 수출은 9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5년 6월 기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한 46억 달러를 기록
  - (수입) '24년 튀르키예로부터의 수입은 11.3% 감소하여 13억 달러에 그쳤으나, '25년 상반기에는 7억 달러에 도달
  - (무역수지) 한국의 對 튀르키예 무역수지는 '21년 57억 8,900만 달러에서 '24년 77억 3,200만 달러(약 33% 증가)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며, '25년 9월 기준으로도 60억 4,900만 달러를 기록하며 튀르키예 시장의 잠재력을 시사함

### 한국의 对튀르키예 수출액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누계
수출액 (증감률)	70 (26.7)	77 (9.9)	90 (16.4)	90 (0.2)	62 (0.7)

주: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 한국무역협회(25년 9월 26일)

### 한국의 对튀르키예 수입액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누계
수입액 (증감률)	12 (-6.1)	14 (12.3)	14 (3.5)	13 (-11.3)	9 (2.8)

주: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 한국무역협회(25년 9월 26일)

- (주요 교역 품목)
  - (수출) 합성수지, 전기자동차, 석유화학제품 등

### 한국의 对튀르키예 10대 수출 품목 동향

2024년				2025년 8월 누계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총 수출	9,009	0.2		총 수출	6,194	0.7
1	합성수지	1,061	-10.3	1	합성수지	761	7.2
2	석유화학합성원료	815	14.7	2	전기자동차	563	83.1
3	열연강판	462	1.0	3	석유화학합성원료	499	-21.3
4	자동차부품	450	-9.4	4	승용차	345	72.7
5	의약품	441	14.1	5	의약품	264	-6.6
6	전기자동차	422	345.0	6	열연강판	247	-13.8
7	원동기	373	-3.1	7	원동기	225	1.2
8	아연도강판	368	-4.3	8	아연도강판	218	-11.3
9	승용차	284	-26.2	9	자동차부품	212	-36.2
10	냉연강판	219	-18.5	10	건설중장비	165	2.9

자료: 한국무역협회(25년 9월 26일)

- (수입) 의약품, 자동차 부품, 기타 금속광물 등

### 한국의對튀르키예 10대 수입 품목 동향

2024년				2025년 8월 누계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총 수입	1,277	-11.3		총 수입	922	2.8
1	의약품	333	-33.1	1	의약품	233	-9.4
2	자동차부품	125	-9.8	2	자동차부품	110	37.7
3	직물제의류	65	-8.2	3	기타 금속광물	68	110.2
4	기타 금속광물	61	148.7	4	아연광	49	55.3
5	편직제의류	57	-11.5	5	어육	44	205.7
6	아연광	52	116.7	6	직물제의류	43	-10.0
7	기타 정밀화학원료	35	-20.9	7	편직제의류	35	-12.9
8	사탕과자류	27	-0.3	8	사탕과자류	22	45.8
9	어육	19	-64.7	9	기타 정밀화학원료	17	-26.5
10	가방	17	-30.2	10	원동기	14	12.5

자료: 한국무역협회('25년 9월 26일)

### 한국의 튀르키예 내 수출시장 점유율

- 석유화학제품 수출은 '21년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석유화학 합성원료를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에 전반적인 수출 감소 경향의 영향을 받은 바 있음

### 한국의 对튀르키예 석유화학제품 수출 동향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누계
석유화학제품 (MTI 21)	2,175 (64.8)	2,113 (-2.9)	2,286 (8.2)	2,190 (-4.2)	1,451 (-6.6)
합성수지 (MTI 2140)	1,267 (61.9)	1,091 (-13.9)	1,183 (8.4)	1,061 (-10.3)	761 (7.2)
석유화학합성원료 (MTI 2130)	525 (74.1)	625 (19.0)	711 (13.8)	815 (14.7)	499 (-21.3)
기타 석유화학제품 (MTI 2190)	283 (60.6)	280 (-1.0)	279 (-0.5)	215 (-22.8)	103 (-29.3)

주: ( )는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25년 10월 2일)

## 2026 튀르키예 진출전략

- '22년 이후, 한국의 튀르키예 대상 전기차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5년 상반기에는 승용차 수출 또한 회복세를 보임

### 한국의 对튀르키예 수송기계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누계
<b>수송기계 (MTI 74)</b>	726	822	1,234	1,417	1,275
	(20.4)	(13.3)	(50.1)	(14.8)	(25.5)
<b>전기자동차 (MTI 7414)</b>	5	15	95	422	563
	(2,271.6)	(187.4)	(532.7)	(345.0)	(83.1)
<b>자동차 부품 (MTI 7420)</b>	396	369	497	450	212
	(24.8)	(-7.0)	(34.8)	(-9.4)	(-36.2)
<b>승용차 (MTI 7411)</b>	238	271	385	284	345
	(15.4)	(13.7)	(41.9)	(-26.2)	(72.7)

주: ( )는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25년 10월 2일)

- 철강제품은 '21~'23년은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24~'25년 7월까지는 감소세를 시현

### 한국의 对튀르키예 철강제품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누계
<b>철강제품 (MTI 61)</b>	1,120	1,307	1,718	1,544	970
	(30.2)	(16.7)	(31.5)	(-10.1)	(-3.1)
<b>열연강판 (MTI 6132)</b>	274	252	458	462	247
	(-11.4)	(-8.1)	(81.8)	(1.0)	(-13.8)
<b>아연도강판 (MTI 6134)</b>	240	302	385	368	218
	(56.7)	(26.0)	(27.3)	(-4.3)	(-11.3)
<b>냉연강판 (MTI 6133)</b>	141	200	269	219	154
	(54.6)	(41.8)	(34.1)	(-18.5)	(11.4)

주: ( )는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25년 10월 2일)

## □ 터르키에 주요 수출 성공 사례



### 성공 사례로 보는 터르키에 진출전략 : 주류 유통업체 A사

- 제품의 비교우위 : 현지의 K-푸드에 대한 인기 증가로, 한국 주류와 식문화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
- 바이어 발굴경로 : KOTRA 내 '수출 24 잠재 바이어 발굴 서비스'를 통한 사업 접수 및 '바이코리아 인콰이어리'를 통한 한국 소주 업체에 대한 발굴 요청 접수를 서로 연결하여 사업 진행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잠재 바이어 발굴, 인콰이어리 접수에 대한 KOTRA 무역관 내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해 고객들 간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연결 성사
  - 무역관 내 조사 담당자를 통해 한국 주세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류의 도수·용량을 조정하여 통관 문제 해결 등 내부 협업을 통한 성과 창출 사례



### 성공 사례로 보는 터르키에 진출전략 : 제약 기업 B사

- 제품의 비교우위 : 공공 입찰 참여 및 내수 직판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요를 발굴하고, 터르키에 생산공장을 운영 중이지는 않으나 한국에서 원료 의약품을 수입하여 현지 기업을 통해 제품을 위탁 생산하고 유럽으로 수출을 진행하는 등의 시장 확대 노력
- 바이어 발굴경로
  - 공공의료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항암제 제품의 공공 입찰에 적극 참여하여 시장 점유율 및 매출 확대 추진
  - 내수 시장에 대해서는 과거에 간접 판매를 진행하였으나, 단가 협상 등에 애로가 많아 직판으로 변경하여 영업 이익 확대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공공 부문 입찰은 현지화로 진행되고 대금 회수 기간이 길어 환 변동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음. 이에 현지 파트너사를 입찰 파트너로 발굴하여 현지 파트너가 대금을 선지급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여 대금 회수 기간 장기화에 따른 환손실 위험 회피
  - 민간 판매 부문을 통해 이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공공 부문 사업의 애로를 민간 부문 사업으로 보완



## 성공 사례로 보는 터르키예 진출전략 : 계량 솔루션 기업 C사

- 품의 비교우위
  - 산업용 제품은 자동화가 핵심인 바, 단순 계량 기능만으로는 산업용 솔루션으로 부족하여 계량된 무게를 입력 변수로 하여 단순 계량 기능이 아닌 선별 기능, 프린팅 기능, 운반 기능, 스티커 부착 기능 등을 추가한 산업 솔루션을 현지 시장에 적극 소개
  - 전통적인 계량 제품뿐만 아니라 저울+컨베이어, 저울+프린팅, 저울+선택기 콘셉트로 개발한 산업용 솔루션 확대 공급
- 바이어 발굴경로 : 단순 에이전트가 아니라 C사 제품을 구매하여 이를 자사 재고로 영업하는 사업 파트너로서의 딜러망을 구축함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계량+부가 기능을 콘셉트로 산업용 제품을 개발하고 있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고급화를 위해 자사 기술이 있음에도 한국의 POS(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장비 기업과 협업으로 신제품 출시하는 터르키예 기업 존재
  - 제품 움직임 센싱 기술을 보유한 터르키예 기업과 협업하여 터르키예 출시 제품에는 동사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출시
  - 위와 같은 적절한 현지화 전략과 제품의 차별화 전략 추구를 통해 '22~'23년간 터르키예 리라화 가치 하락에 따른 환율 불안, '24년의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영업 성과를 달성

## □ 주요 경쟁국 동향

- 터르키예 시장에서의 주요 수출국은 EU가 42.3%로 가장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중동(16.6%)과 기타 유럽(14.9%)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해당 국가 및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제품과 하이테크 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임
  - 특히 EU 국가들은 우수한 기술력과 보장된 품질을 기반으로 자동차, 기계류, 철강 등의 주력 품목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

## □ 터르키예의 대외 수입 규제, 對韓 수입 규제 등

- 수입 규제 및 비관세 장벽
  - '25년 9월 기준 총 144건의 수입규제 조치 시행 또는 조사 진행 중(세이프가드 10건, 세이프가드 조사 3건, 반덤핑 110건, 반덤핑 조사 21건)
- 한국 대상 수입규제는 전체 21건으로 추정
  - 유형별 : 반덤핑(11건), 세이프가드(8건), 우회수출규제(2건)
  - 품목별 : 철강·금속(8건), 섬유·의류(6건), 화학 제품(2건), 플라스틱·고무(2건), 기타(3건)
  - '23년 4월 한국산 프탈산 무수물 반덤핑 최종 판정, 기본 반덤핑 세율 8.44% 책정
  - '23년 8월 한국산 폴리에스터 단섬유에 대해 반덤핑 최종 판정, 6.2%의 관세 부과

- '24년 1월 한국산 치과용 임플란트(2개 특정 기업 대상)에 대해 반덤핑 최종 판정, 140달러/kg 및 320달러/kg의 관세 부과
- '24년 4월 한국산 열간압연 평강 반덤핑 조사 개시, 18개월 내 판정 결과 발표 예정
- '24년 5월 한국, 중국, 대만, 인도, 러시아, 태국산 폴리스티렌 반덤핑 조사 개시
- '24년 6월 한국, 중국, 일본, 세르비아산 도금 및 도장된 비합금 철강 평판압연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 개시
- '24년 12월 한국, 중국산 냉간압연 평강, 내식성 아연도금 강판, 컬러강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 개시
- 기타
  - 튀르키예는 '25년 9월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총 21건의 수입 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며, 이는 전년 대비 1건 감소
  - 최근 철강, 섬유 등의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주의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수입 규제는 계속해서 유지 혹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응하여 FTA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전략 수립 필요

## 다. 산업

### □ 주요 산업 개요

- 자동차 산업
  - 자동차 산업은 튀르키예 제조업('23년 기준, 튀르키예 GDP의 약 19% 차지) 내 중심 역할 담당
  - 수출 경쟁력 중심 산업으로, 유럽과 중동 시장에서 주요 공급처 역할
  - 전기차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 계획과 전기차 공장 인센티브 발표
    - \* 중국 자동차 기업 BYD가 10억 달러 규모의 공장 건설 및 연간 15만 대 생산 계획 발표
- 방위 산업
  - 국방 자립과 외국 의존도 축소 전략의 핵심 고리
  - '24년 수출 규모 최초로 70억 달러 돌파, 국내 의존도 70% 이상을 달성하였으며, '25년 (규모 확인 필요)
  - 2025년 항공우주·국방 시장 규모는 154억 달러 이상
- 화학·에너지 산업
  - 제조업 전반에 필요한 필수 중간재 공급자로 기능하며, 석유화학·플라스틱·비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역할
  - '22년 기준 화학 제조업 시장 규모는 약 (확인 필요)
  - 에너지 부문에서는 석유 수입 의존도가 높으며, LPG 사용량 세계 최고 수준

- 제약·바이오의료 산업

- 사회 기반 산업으로, 보건·경제 양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 강조
- '24년 제약 시장 규모 (확인 필요)
- 의료관광 확산 및 병원 인프라 확충으로 기기 수요 확대 : 의료관광 외화 수입(확인 필요)

## 라. 투자

### □ 외국인 투자 동향

- '23년에는 55억 7,000만 달러, '24년 1~7월에는 34억 3,000만 달러의 외국인 투자 유치
  - '24년 1~7월의 FDI는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했으며 HIT-30 등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정책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HIT-30 : 터르키예 투자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반도체, 전기차, 재생에너지 플랜트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세제 혜택, 저가 토지 임대, 노동 요건 완화 등 각종 혜택을 제공
- 금액 기준 유럽 국가의 투자가 매년 전체의 70% 내외 차지
  - 주요 투자국은 네덜란드, 러시아, 독일, UAE, 아일랜드 등
  - 유럽 기업은 터르키예를 유럽·중동 시장의 생산기지로 활용, 제조업 투자 다대

### 對터르키예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7월 누계	
						투자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	네덜란드	749	788	1,167	1,581	2,278	212.9
2	카자흐스탄	4	0	8	24	610	15,150.0
3	독일	479	972	511	773	424	3.2
4	UAE	1,180	316	206	688	384	-10.2
5	아랍에미리트	449	274	583	308	273	175.8
6	아제르바이잔	150	86	375	416	206	-15.6
7	영국	1,392	401	325	372	163	-34.5
8	프랑스	127	177	403	241	162	138.2
9	스위스	521	704	215	399	160	-7.5
10	오스트리아	94	187	48	77	79	58.0
29	한국	344	60	33	62	7	-81.1
<b>총계</b>		7,148	6,963	5,863	6,695	5,402	50.6

주: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 터르키예 중앙은행('25년 9월 16일)

## □ 현지 주요 투자 유치 산업

- '23년 기준 업종별 투자 현황은 서비스업은 55.6%, 제조업 30.6%, 농업 0.5%
- 튀르키예는 '21년 이후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왔으며 이 같은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초기투자(Early-stage Investment) 금액 기준으로 집계할 경우 튀르키예 유입 FDI는 '21년부터 급증

\* ('10년~'20년) : 총 104건, 연평균 7,400만 달러 / ('21년~'23년) 총 338건, 13.3억 달러

## 주요 업종별 튀르키예 FDI 동향(Flow 기준)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단위: 백만 달러, %)
					2025년 7월 누계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 농업	148	71	28	178	13(-92.4)
2. 산업	1,850	2,099	2,414	2,590	2,073(53.7)
2-1. 광업	65	174	173	181	3(-98.3)
2-2. 제조업	1,655	1,565	1,743	2,311	2,006(76.0)
• 식음료·담배	158	509	145	382	1,159(993.4)
• 제지 및 인쇄	71	43	22	37	32(128.6)
• 에너지(석탄·석유·가스)	138	105	2	0	0
• 화학 및 의약	284	163	299	594	74(-73.5)
• 컴퓨터, 광학 및 전기전자	205	372	436	655	180(-56.3)
• 운송장비	429	29	182	149	129(84.3)
2-3. 전기 및 가스공급	129	360	497	98	64(88.2)
3. 서비스	5,150	4,793	3,421	3,927	3,316(60.4)
• 건설업	42	55	144	252	46(-64.1)
• 도소매업	3,392	1,579	1,020	1,699	2,177(182.0)
• 운수 및 창고업	216	392	240	480	123(-52.9)
• 숙박 및 음식점업	115	332	46	54	31(3.3)
• 정보통신업	677	277	321	288	176(17.3)
• 금융 및 보험업	227	1,764	595	449	323(-8.8)
• 부동산업	26	43	298	108	32(-36.0)
총계	7,148	6,963	5,863	6,695	5,402(50.6)

주: 증감률은 전년 대비

자료: 튀르키예 중앙은행('25년 9월 16일)

## □ 주요 경쟁국의 현지 투자 유입 동향

- 튀르키예 내 일본 투자 진출 소극적, 최근 중국의 투자 증가 경향
  - (일본) 현지에서 확인되는 일본의 투자 진출은 활발하지 않음

- (중국) '24년 7월 중국의 전기차 업체인 BYD가 터르키예에 1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공장 및 R&D (연구개발) 투자 결정을 발표해 향후 중국의 터르키예 내 투자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 한국의 터르키예 투자 진출

- '81년부터 '25년 2분기까지 누적 투자 금액은 약 38억 3,000만 달러이며, '12년부터 '24년까지 매년 1억 달러 이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의 터르키예 투자 진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분기 누계	
	금액, 건	증감률	금액, 건	증감률	금액, 건	증감률	금액, 건	증감률
투자 금액	113	-284	149	+36	199	+50	39	-160
신규 법인 설립 건수	8	+1	7	-1	11	+4	12	+1

주: 신규 법인 설립 건수는 현지법인·지점·지사 모두 포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5년 9월 19일)

- 투자누계액 기준 제조업 투자 17억 7,700만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정보통신업(7억 5,700만 달러), 건설업(6억 6,100만 달러), 도매·소매업(4억 5,000만 달러) 등이 뒤를 잇고 있음

### 한국의 터르키예 주요 업종별 투자 규모

(단위: 백만 달러)

산업	2023년	2024년	2025년 1분기	누계
농업·임업·어업	0	2	0	8
광업	0	0	0	26
제조업	145	100	2	1,777
전기·가스	0	0	0	24
건설업	0	35	0	661
도매·소매업	3	37	5	450
운수·창고업	0	1	0	6
정보통신업	0	0	24	757
금융·보험업	0	23	0	35
전문·과학·기술서비스	0	1	0	14
사업시설관리·임대서비스	0	0	0	1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0	0	0	6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5년 9월 16일)

## □ 우리 기업 투자 진출 사례

- 튀르키예가 갖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제조업 역량을 활용하여 EU 등 인근시장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현지 주요 기업에 부품과 소재를 납품하기 위한 제조업 투자가 성과를 내고 있음
- 이 같은 사업 형태는 대외 여건에 변동성이 큰 튀르키예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환율로 인한 경영상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 제품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내수에 공급하는 경우 외환 매입-현지화 매출이라는 통화 불일치 문제가 있어 환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 한국이나 제3국으로부터 부품·소재를 수입하여 현지에서 완제품을 제조하여 EU 등 인근국으로 수출할 경우 외환 매입-외환 매출이 이루어져 리라화 변동성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음
- 현지에서 완성차를 생산하여 EU 등 인근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 A사, 생활용품 섬유소재를 생산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 B사가 상기 모델에 해당할 수 있음



###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튀르키예의 지리적 이점과 제조업 역량 활용을 위한 제조업 투자

- (기업 정보)
  - 국내 기업 A사, 튀르키예 현지에서 완성차를 생산하여 EU 등의 인근국으로 수출
  - 국내 기업 B사, 생활용품 섬유 소재를 생산하여 인근의 제3국으로 수출
- (성공 요인)
  - 대외 여건의 변동성이 큰 튀르키예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환율로 인한 경영상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 (시사점)
  - EU, 중동, 아시아 시장과 모두 인접한 튀르키예의 지리적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근 시장에 현지 생산 제품을 수출하거나 현지 주요 기업에 부품과 소재를 납품하기 위한 제조업 투자가 성과를 내고 있음
  - 제품을 한국에서 수입하여 내수에 공급하는 경우, 외환 매입-현지화 매출이라는 통화 불일치 문제가 있어 환 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 한국이나 제3국으로부터 부품·소재를 수입하여 현지에서 완제품을 제조해 EU 등 인근 국가 시장으로 수출할 경우 외환 매입-외환 매출이 이루어져 리라화 변동성에 대한 환위험을 헛지할 수 있음

## □ 현지 투자 진출 시 진입장벽

- 방송, 통신 등 특정 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 제한 존재
  - 라디오, TV 방송(방송법 Law No : 3984) : 라디오 및 TV 방송국 관련, 외국인 지분은 49% 이하로 제한 중
  - 국내 민간 항공(항공법 Law No : 2920) : 튀르키예 내 승객, 화물 및 우편 수송은 자국 국적의 항공사에 의해서만 가능

- 국내 해운(해운법 Law No : 815) : 자국 내에서의 승객 및 화물 수송은 자국 국적의 선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해운업(선박 견인, 항만 서비스 등)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 및 해상 무역, 수산업 관련 업무 또한 자국 국민만 수행이 가능
  - 선박 소유(무역법 Law No : 6732) : 터르키예 기업으로 분류된 기업 중 선박을 소유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사회의 과반수가 자국 국민이어야 가능
  - 전화 및 전보 서비스(통신법 Law No : 406) : 외국인도 통신 분야의 지분을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으나, 이사회 구성원 중 1명은 터르키예 정부에서 추천하는 인물이 반드시 포함(지분은 보유하지 않고 투표권만 보유)
  - 수산업(수산물법 Law No : 1380) : 수산물 채집, 낚시 등의 권한은 터르키예 국민에게만 부여
  - 요트 선착장(관광 촉진법 Law No : 2634) : 요트 선착장을 소유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은 터르키예 국민 또는 터르키예 기업과 파트너십 체결 필요
  - 인력 알선회사(고용법 Law No : 4904) : 자국 국민만 인력 알선회사를 설립 가능
  - 민간 경호서비스 회사(시설 경호 서비스법 : Law No : 5188) : 터르키예 국민만 민간 경호서비스 회사를 설립 가능
- 인사·노무 관련
    - 외국인 직원 1명당 자국민(터르키예) 직원 5명 채용 의무, 이로 인해 제조업 이외의 무역업, 관광업, 지사(연락사무소) 등은 필요한 만큼의 본국 직원 고용이 곤란하며 특히 터르키예는 영어 사용에 제약이 많아 시장조사 및 본국 파트너사와의 원활한 소통 애로
  - 기타
    - 광업, 석유, 전력, 천연가스 분야는 터르키예 정부의 라이선스 취득 의무가 있고 이를 발급 받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

## 2. 유망 산업

### 가. 방위 산업

#### □ 개요

- 현지 산업 규모
  - '24년 기준, 튀르키예 방위 산업의 총 매출은 약 15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튀르키예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로, 주요 방위 산업체로는 Baykar, MKE, Aselsan, Roketsan, SYS 등이 있음
  - 정부는 방위 기술의 대외 의존도를 축소하여 자국 내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25년 현재 튀르키예의 방위 산업 국산화율은 83%에 도달
- 최근 수출입 동향
  - 방위 산업 수출액은 '24년 연간 수출 규모 71억 달러에 이어, '25년 상반기 기준 40억 달러에 도달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수출의 약 55%는 NATO 및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 수입 측면에서는 자국 내 생산 역량 또는 품질이 아직 제한적인 고급 광학 장비, 레이더 전자부품, 군용 등급의 원자재 등 일부 첨단 기술 부문에 대한 선택적 수입이 지속되고 있음

#### 튀르키예 방산 기업별 주요 품목 및 수출 규모

기업명	Baykar	Turkish Aerospace Industries(TAI)	Tusas Engine Industries	MKE
주요 품목	드론	항공우주 시스템	항공우주 엔진	군수품
수출액	18억 달러	7억 5,000만 달러	3억 9,000만 달러	2억 6,000만 달러
기업명	Roketsan	Ram Dis Ticaret	Aselsan	Samsun Yurt Savunma
주요 품목	미사일	군용차량	전자장비	항공장비
수출액	1억 8,000만 달러	1억 9,000만 달러	2억 2,000만 달러	1억 7,000만 달러

자료: Anadolu Agency('25년 2월 1일)

####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인공지능(AI)과 첨단장비 관련 분야의 성장 가속화
  - 최근 전자장비, 차세대 항공기, AI 기반 운영체계 등 첨단 방위 장비의 생산이 가속화되고 있음
  - 다만, 고급 방위 시스템의 생산에 사용되는 부품과 원자재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해외 의존도 보임

### 튀르키예 방위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Asels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년 7월, 터르키예는 '스틸 돔 프로젝트(Steel Dome Project)'의 공개를 통해 AI가 통합된 다중형 방공체계의 지속적 전진 노력 보임</li> <li>• ASELSAN과 ROKETSAN이 해당 프로젝트 개발을 주도했으며, AESA 레이더, 장거리 조기경보 능력, 신형 드론 대응 시스템 등이 포함</li> </ul>
Turkish Aerospace Industr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인 전투기 ANKA III의 시험 비행을 통해 완전 자율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무장 비행 시험 단계에 진입 완료</li> <li>• '25년 5월, 인도네시아와 KAAN 5세대 전투기 수출 1호 계약(48대 규모) 체결</li> </ul>
(해외) Leonardo (자국) Bayk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년 6월, 터르키예의 주요 무인기(UAV) 제조업체인 Baykar와 이탈리아의 Leonardo는 합작법인 'LBA Systems'를 설립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음.</li> <li>• 해당 파트너십은 차세대 무인 시스템 개발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조만간 생산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됨.</li> </ul>
(해외) BAE Systems (자국) TA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세대 전투기 1단계 개발(First Development Phase)을 위해 1억 파운드 규모의 계약 체결</li> </ul>

자료: Compnay Press Releases and Media Reports, 터르키예 투자청

- 드론·전투기 기술 개발 분야의 한국 기업 협력 수요 높음
  - 터르키예는 글로벌 주요 방산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해외 기업들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 특히 첨단 소재, 추진 시스템, 전자 부품, AI 기반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음
  - 한국 기업이 핵심 부품을 공급한 Altay 전차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 □ 기타

- 터르키예 방위 산업 공급망 진입을 위한 한국 기업의 전략적 협력 기회 확대 전망
  - 터르키예 방위 산업은 강력한 정부 지원, 증가하는 수출, KAAN 전투기 및 스틸 돔(Steel Dome) 방공 프로젝트와 같은 전략적 사업에 힘입어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특수 금속, 레이더 전자부품, 미사일 유도 부품, 엔진 하위 시스템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 최근 터르키예 정부가 국내 생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흐름에 맞춰 완제품 수출보다는 방위 산업 공급망에 참여하는 방식의 협력 권장

## 나. 원자력 산업

### □ 개요

- 현지 산업 규모
  - 최근 터르키예는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 확보를 위해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
  - 터르키예의 첫 원자력 발전소인 Akkuyu 원전은 러시아 Rosatom이 건설을 맡고 있으며, 완공 시 연간 약 350억 kWh, 전체 전력 수요의 약 10% 공급이 전망되어 터르키예의 에너지 자립 목표 달성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터르키예 정부는 '35년까지 7.2GW, '50년까지 20GW의 원자력 용량 확보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이중 SMR(소형모듈원자로)이 5GW를 담당할 계획
- 최근 수출입 동향(HS Code 840110)
  - 수입 : 1억 3,800만 달러, 주로 러시아산, 독일산 소량 수입
  - 수출 : 6,600달러

###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Akkuyu 프로젝트 : 러시아 기업 Rosatom이 설계·시공·운영을 담당
  - 민간·현지 기업 참여, 400여 개 기업이 밸브, 펌프, 케이블, 물류,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
- 신규 프로젝트 진행 중 : Sinop 및 Trakya 원자력 발전소 계획
  - 협상 다양화, 미국과는 대형 원전 및 SMR 관련 협의 중이며, 한국·중국과도 다각적 논의 진행 중
- (우리 기업 협업 수요)
  - 터르키예는 원자력 기술 다변화 전략을 채택 중이며, 한국의 기술과 경험에 대해 높은 평가
  - Sinop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 열려 있으며, SMR 분야, EPC(설계·조달·시공), 공급망, 인프라, 훈련·교육 체계 등의 협력 여지 존재

### □ 기타(향후 전망, 기회요인 등)

- 향후 전망
  - '35년까지 총 7.2GW 원전 용량 확대, '50년 20GW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
  - 터르키예 원전 산업은 Akkuyu 원전 프로젝트를 계기로 본격적인 원자력 발전 시대에 진입했으며, 향후 시놉 원전 및 SMR 사업 등 추가적인 프로젝트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특히 터르키예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자립을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어, 원자력 발전을 지속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 기회 요인

- 한국형 원전 기술(KNPP) 및 SMR 등 차세대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에 유리한 조건 존재, 현지 건설사 및 부품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기술 이전 및 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방식 등으로 시장 진입 기회 확대 가능

## 다. 뷰티·화장품 산업

### □ 개요

- 현지 산업 규모

- 튀르키예의 화장품 개인 위생용품 시장은 '24년 기준 76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으며, '24~'29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4.2%가 예상됨
- 튀르키예의 화장품 산업은 국내 브랜드가 선전하고 있으며, '25년 연간 시장 성장을 또한 약 15%로, 글로벌 뷰티 시장의 화장품 산업 단위 성장률인 2%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측정되어 향후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보임

- 최근 수출입 동향

- 튀르키예의 화장품 수출은 '24년에 8.5% 증가하여 20억 달러에 도달했으며, '25년 수출 목표는 33억 달러로 설정하였고 주요 수출 시장은 유럽, 이라크, 러시아, 미국, UAE로 파악됨
- 튀르키예의 화장품 수입은 '24년에 둔화 조짐을 보이며 1.2% 감소한 34억 달러를 기록. 이는 환율 변동성, 높은 인플레이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영향으로 사료됨
- EU가 61.8%의 점유율로 여전히 주요 공급국 지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한국은 튀르키예 색조 화장품 주요 수입국(2위)으로 부상하고 있음

### 튀르키예의 화장품 수입 동향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1	프랑스	84,863	136,417	133,540	29.7	32.2	30.9
2	한국	31,081	56,167	67,822	10.9	13.2	15.7
3	독일	21,231	33,016	37,065	7.4	7.8	8.6
4	이탈리아	19,519	30,187	33,006	6.8	7.1	7.6
5	미국	22,201	27,859	31,614	7.8	6.6	7.3
<b>총계</b>		285,804	424,218	432,393	100.0	100.0	100.0

자료: Global Trade Atlas(HS CODE 330499)

##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현지 유통망과 소비 트렌드에 기반한 한국 스킨케어 제품의 시장 진입 증가
  - '24~'25년 사이, 국내 기업들이 스킨케어 부문에서 입지를 강화했으며, Watsons, Gratis와 같은 화장품 유통 체인에 입점되어 접근성이 높아진 K-뷰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최근 Eve와 같은 새로운 유통 체인이 등장하여 성장 중으로, 신규 유통 체인과의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 기회 모색 가능
  - 화장품 시장 내 마케팅 전략은 특히 제품의 친환경적 성분과 기능적 효과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집중되고 있음

### 튀르키예 화장품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Gratis and Rom&nd Collaboration	• Gratis는 '25년부터 한국 브랜드 롬앤(rom&nd)과 컬러 화장품 협업을 시작했으며, 매장 내 K-뷰티 제품의 종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음
DeFacto Korean Cosmetics Collection	• 튀르키예 의류 브랜드 DeFacto는 여러 한국 화장품 브랜드와 협력하여, Medicube, Nature Republic, Anua 제품을 자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선보이고 있음

자료: 현지 언론 및 기업 공개자료 종합

## □ 진출전략

- 튀르키예의 화장품 유통 구조에 맞춘 현지화 전략 필요
  - 튀르키예 내에서 화장품은 현지 수입업자 혹은 현지 등록 법인을 통해서만 판매가 가능한 구조이며, 현지 유통을 위해서는 UTS(제품추적시스템) 등록 필수
  - 대부분의 수입업자는 높은 수입 비용 때문에 독점 계약을 선호하여 여러 유통업체에 걸친 다변화는 실제적으로 어렵기에,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운영하는 Gratis, Eve와 같은 대형 유통 체인과의 협력을 통한 시장 접근성 확대 가능
- 자연 성분·기능성 제품에 대한 소비 트렌드 강화
  - 최근 튀르키예의 주요 화장품 소비자인 젊은 세대들은 제품 성분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며, 명확한 효과가 입증된 안전한 조성물 및 특정 기능을 가진 자연 성분과 부작용이 적은 제품 선호

## 라. 의료·바이오테크 산업

### □ 개요

- 현지 산업 규모
  - 튀르키예의 헬스케어 산업은 1조 2,000억 리라(290억 달러)에 달하는 등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 8,500만 명에 달하는 인구 증가, 그리고 유럽·중동의 의료 허브로서의 전략적 역할에 힘입어 국가

내에서 가장 역동적인 산업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음

- 터키예의 의료기기 시장은 '25년 매출이 52억 5,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4.2%를 기록하여 64억 4,000만 달러에 도달할 전망
- 지속적인 의료관광에 대한 수요도 이를 뒷받침하며, '24년의 의료관광 방문객 수는 전년 대비 7.9% 증가한 151만 명을 기록했고, 30억 2,0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
- 최근 수출입 동향
  - 터키예의 의료기기 수입과 관련하여, 임플란트, 엑스레이 장비와 같은 치과 제품 분야에서는 한국이 임플란트 부문에서 두 번째, 치과 엑스레이 부문에서 세 번째로 큰 수출국으로 중요한 점유율을 차지

#### 터키예의 임플란트(HS Code 902129) 수입 동향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1	독일	31,861	35,475	40,979	30.6	26.6	30.8
2	한국	32,869	35,180	38,176	31.6	26.3	28.7
3	스위스	12,120	16,288	12,998	11.7	12.2	9.8
4	브라질	5,828	17,055	11,888	5.6	12.8	8.9
5	미국	7,727	11,896	11,077	7.4	8.9	8.3
<b>총계</b>		103,969	133,615	133,189	100.0	100.0	100.0

자료: Global Trade Atlas

#### 터키예의 치과용 엑스레이기기(HS Code 902213) 수입 동향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1	이탈리아	8,049	7,734	6,977	35.7	33.1	32.5
2	중국	1,680	2,900	4,725	7.5	12.4	22.0
3	한국	6,640	7,004	3,517	29.5	30.0	16.4
4	프랑스	2,416	2,183	2,446	10.7	9.3	11.4
5	핀란드	922	834	1,949	4.1	3.6	9.1
<b>총계</b>		22,541	23,364	21,445	100.0	100.0	100.0

자료: Global Trade Atlas

##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디지털 헬스 전환 가속화에 따른 의료기기 수출 전략 필요
  - 디지털화는 튀르키예의 바이오·의료 분야 전반에 걸쳐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았으며, 첨단 디지털 헬스 애플리케이션, AI 기반 진단, 스마트 의료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동시에, 첨단 영상 시스템, 생의학 기술, 임플란트 및 엑스레이 장비와 같은 치과 장비에 대한 수요가 가장 강하게 두드러지며, 관련 투자 지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튀르키예 의료·바이오테크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Koç Hol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오테크 기업 StemBio 지분 65% 인수로 헬스케어 투자 확대하며, 제대혈·조직은행, 줄기세포 생산 및 항암 치료제 개발 연구 수행</li> <li>• '24년 12월, 튀르키예 최대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인 AbdiBio를 건설(총 1만 3,000m<sup>2</sup> 규모)</li> </ul>
Sandoz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년 11월, 스위스 소재 글로벌 제약사 Sandoz는 튀르키예 내 생산 확대를 발표하며, Gebze 공장의 생산 능력을 150억 정으로 늘리기 위해 8,000만 달러 투자 계획 발표</li> </ul>

자료: 현지 언론 공개 자료 종합

## □ 진출전략

- 튀르키예 내 바이오테크 분야 R&D와 생산시설에 대한 활발한 지원
  - 최근 정부가 해외 바이오테크 기업의 국내 연구개발센터, 생산시설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인센티브로 작용 예상
  - 국내 제조업체는 주로 내수·수출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나, 한국 기업은 첨단 의료기기, 재생 의학, 바이오 기술 치료제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어 현지 업체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입지 강화 가능
- 관련 인증 절차 및 거시 경제적 리스크 고려 필요
  - 의료기기는 UTS(제품추적시스템) 등록과 CE 인증이 필수이며, 의약품은 긴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이에 대한 사전 숙지가 요구됨
  - 의료 분야 지출 증가, 우호적인 정부 정책으로 인한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이 최근 수요를 견인하고 있으나, 환율 변동과 인플레이션 등 거시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

### 3. 협력 기회

#### 가. 통상·G2G

##### □ (무역협정) FTA 활용 등 협력 유망 분야

- 한국–튀르키예 FTA는 '13년 5월에 공식 발효
  - '08년 1월 터르키예가 한국과의 FTA 체결을 제안
    - \* 터르키예의 EU·튀르키예 간 관세동맹에 따른 의무 및 한국·튀르키예 양국 간 교역 확대 차원
    - \* 터르키예-EU 관세동맹 제16조 : EU가 제3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터르키예도 동 제3국과 FTA를 체결하도록 필요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
  - 수입액 기준 한국 측은 99.6%, 터르키예 측은 100%를 10년 내 관세 철폐, 양측 모두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7년 내 관세 철폐 달성
  - 수출 주력 품목(소형차)에 대해 7년 비선형 관세 철폐, 수출 관심 품목인 자동차 부품은 5년 내 관세 철폐, 석유화학은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즉시 철폐
  - 농수산물의 경우 양허 제외 등의 조치를 통해 민감 품목 보호
    - \* 양허 제외(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신선과일, 명태 등)
  - 한국–튀르키예 FTA 서비스·투자 협정은 '13년 8월에 발효
- FTA 발효 이후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철강판, 합성수지, 자동차 부품, 의약품 등이 수출을 견인하면서, **对튀르키예 수출액이 발효 전인 '12년 46억 달러에서 발효 후 '24년 10월 기준 76억 달러로 증가**
- 발효 후 양국 간 투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현대자동차, 효성티앤씨 등 우리 기업의 터르키예 진출은 우리나라의 **对튀르키예 중간재 수출을 증가시키고, 터르키예 내수 공급과 수출 확대에 기여**
- **对튀르키예 수입은 수출에 비해 증가폭 크지 않아 수출·수입 간 균형 개선에 대한 관심이 필요**

##### □ (G2G) 국가 간 협력 유망 분야

- 에너지(원전) 분야 협력 확대
  - 터르키예는 '24년 기준 러시아와 협력하여 아크쿠유에 자국 최초의 원전을 건설하고 있음
    - \* 터르키예 제1호 원전인 아크쿠유 원전은 '13년부터 착공하여, '18년에는 1호기 기공식을 진행했음. 2~4호기가 순차적으로 건설 승인을 받아, 공사 중에 있으며, '23년에는 1호기에 연료가 주입되었음
    - \* 전체 용량 4,800MW로 러시아 기업 로사톰이 220억 달러를 투자해, BOO(Build Own Operate) 방식으로 진행 중
  - 터르키예는 시놉 지역에 제2호 원전 건설 계획을 추진 중
    - \* 시놉 원전은 '13년 일본의 미쓰비시와 프랑스의 아레바 컨소시엄으로 수주하였으나, '20년 프로젝트 비용 증가로 사업이 중단. 한국은 '23년 1월, 터르키예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

- 원전 분야 협력을 위해서는 현지화와 기술 협력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 터르키예 정부는 원전사업 추진 시 현지화(Localization) 요건을 부가할 것이 확실
  -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아크코유 원전에도 터르키예 건설 기업 1社가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으며, 동사는 아크코유 원전 경험을 바탕으로 시놉 원전 참여에도 관심이 있음
- 터르키예는 아크코유 발전소 경험이 있어 러시아 원전 관련 기술에 익숙한 상황임. 원전 1개소가 터르키예 총 전력의 10%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어 특정 국가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새로운 기술 파트너 발굴에도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짐
-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사업 추진 시 사업비용 총당을 위한 적정 전력단가 설정, 전력구매계약 (PPA, Power Purchase Agreement) 관련 보증 등에 대한 양국 간 합의도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
-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SMR(소형모듈원전) 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음
  - \* 터르키예 국토가 가로로 길게 펼쳐져 있어 기존 방식 원전은 전력망에 연결하는 것이 쉽지 않음
  - \* SMR을 지역별로 건설한다면 전력망 연결 관련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안정적 교역 확대를 위한 통상 협력 강화
  - 완제품 생산 중심의 터르키예 산업 구조와 터르키예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한국으로부터의 부품·소재 수요 확대로 한국의 對터르키예 수출액이 對터르키예 수입액을 상회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
  - 안정적인 양국 간 교역 확대를 위해 중간재 현지 생산을 위한 해외 투자 확대, 미래 육성산업 기술 협력 강화 등 상호보완적인 교역 투자 환경 조성 노력 필요

## 나. 프로젝트

### □ 유망 프로젝트

- 터르키예 투자청에 따르면 '20~'40년 기간 중 터르키예가 필요로 하는 인프라 투자는 9,750억 달러인 데 반해, 실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는 5,690억 달러에 불과하여 4,060억 달러 추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 터르키예 정부는 공공 투자 예산을 '23년 211억 달러, '24년 274억 달러로 늘려가고 있으나 필요한 투자를 공공 예산으로만 조달하기는 부족함
- 투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합작투자사업(PPP) 활성화 시도
  - '86~'23년 사이에 총 계약 가치가 2,040억 달러인 270개 PPP 프로젝트 계약이 체결

- 터르키예 최초 원전인 아크쿠유 원전도 PPP 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있으며, 러시아에서 220억 달러를 투자해, BOO(Build Own Operate) 방식으로 진행 중
  - \* 터르키예 정부에서 아크쿠유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 구매를 보장하여, 가동 후 15년간 12.35¢/kWh의 달러 기준 고정 가격으로 구매할 예정
  - \* 1·2호기는 첫 발전량의 70%, 3·4호기는 첫 발전량의 30%에 대해 고정 가격 구매 보장이 유효
  - \* 가동 후 1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발전소 측에서 터르키예 정부에 수익의 20%를 납부
- 터르키예-우크라이나 재건 태스크 포스(Ukrainian-Turkish Reconstruction Task Force) 설치 ('24년 1월)
  - 터르키예(산업부·교통인프라부)-우크라이나(재건부와 공동체·국토·인프라 개발부) 간 회담이 이스탄불에서 진행
  - 회담 중에 우크라이나-터르키예 재건 태스크 포스를 설치하고 우크라이나 해운·항만 프로젝트에 터르키예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 논의함
  - 터르키예 정부는 자국 기업들이 해상 물류, 인프라, 도로, 항공 교통 재개를 위한 잠재적인 협력에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명
  - 도로 인프라 복원, 임시 교량 건설, 수상 운송 인프라 프로젝트, 주택 복구 등이 우선 협력 분야가 될 수 있음을 확인
- (제3국 공동 진출) 터르키예 건설 기업들은 CIS(독립국가연합), 중동, 북아프리카 등 제3세계 프로젝트 추진 경험이 풍부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도 참여코자 함
  -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도 우크라이나 진출 시 터르키예 기업과 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터르키예 건설사가 공사를 수행하고, 한국 기업들이 기자재, 소재 등을 공급하는 방식이 가능

## □ (기업 차원의 협력 유망 분야) G2B, B2B 등

- 우리 기업의 현지 기업 투자, G2B, B2B 등 주요 협력 사례
  - 터르키예는 중간재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제조·수출하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음
  - 한국 기업들이 우수한 품질의 중간재를 터르키예 완제품 제조 기업에 공급하여 터르키예 수출 제품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기업 차원의 협력 성사 가능



### 성공/실패 사례

- (개요) 한국 기업과 터르키예 국내 가전 산업의 협력 사례
- (내용)
  - 터르키예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 A사는 터르키예 가전 산업에 필요한 냉연 스테인리스를 현지에서 생산
  - 한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여 터르키예 현지에서 생산하고, 현지 주요 가전 기업에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터르키예 대형 가전 기업에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설비와 필수 소재를 공급하는 한국의 중소·중견 기업 사례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



### 성공/실패 사례

- (개요) 터르키예의 자동차 수출 확대에 기여하는 한국 기업
- (내용)
  - 터르키예 부르사 지역에 자리 잡은 한국 기업 B사는 자동차 강판 가공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가공한 강판을 현지에 진출한 다국적 자동차 기업 C사에 주로 공급
  - 터르키예는 '23년부터 자국 전기자동차 브랜드 토크(TOGG)를 보유하게 되었음
  - 코자엘리 지역에 소재한 한국 기업 D사는 토크의 차체를 만들어 납품 중임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터르키예 투자청에 따르면 C사가 생산한 차량의 87%가 수출되고 있어, 한국 기업이 터르키예의 수출 규모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음



### 성공/실패 사례

- (개요) 터르키예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과정에 협업 중인 한국 기업
- (내용)
  - 한국 기업이 터르키예 차세대 전투기 개발 관련 방산 산업에 탄소 소재 부품을 공급하고 있음.
  - 한국 기업 E사가 터르키예 현지 기업 베메제(BMC)와의 기술 협력을 체결하여, E사의 기술을 제공받아 '24년부터 알타이 전차에 대한 본격적인 대량 생산 진행 중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단순 부품 공급부터 기술 협력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한국 기업은 유망 산업인 방산 분야에서 터르키예 기업과의 협력 진행 중

### III. 진출전략

- |                 |    |
|-----------------|----|
| 1. PEST/SWOT 분석 | 41 |
| 2. 진출전략         | 43 |

# III 진출전략



## 1. PEST/SWOT 분석

### PEST 분석



#### 정치정책(Political)

- '28년 차기 대선까지는 현 정권의 안정적 유지 예상에 따른 정책 연속성 유지 지속 전망
-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보호무역 및 민생안정 정책 강화
- 러시아, 중동, 서방과의 실리적인 외교 전략을 구사



#### 경제(Economic)

- '25년은 전년에 비해 다소 둔화된 2%대의 경제성장을 예상되지만, '26년에는 3%대의 경제 성장을 회복 전망
-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으로 물가 상승세는 완화될 것으로 분석
- 미국의 터키에 관세율 소폭 인상에 따라 터키에 생산 제품에 대한 국제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확보



#### 사회문화(Social)

- 총인구 8,500만 이상의 거대한 소비시장 보유
- 한류에 맞춰 한국 문화에 관한 관심 증대
- '25년 7월 제정된 기후법을 통해 글로벌 탄소 가격 기준에 부합하는 주요 법적 기반 메커니즘 도입 노력



#### 기술(Technological)

- 방산, 전기차를 중심으로 제조업 고도화 추진
- 부품·소재 관련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 지속
- 신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기업과의 협력 확대
- 산업용 로봇, 바이오 의약품 관련 기술 개발 추진

## SWOT 분석

<b>강점(Strength)</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방산, 친환경 에너지, 전기전자 등 튀르키예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관련 기술력 보유</li><li>플랜트, 건설,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프로젝트 수행 경험 보유</li></ul>	<b>약점(Weakness)</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유럽과 중동의 복합적 규제 환경에 대한 이해 미흡</li><li>PPP 중심의 인프라 발주로 현지 프로젝트 참여 시 금융 조달 역량 확보 필요</li></ul>
<b>기회(Opportunity)</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유럽·중동·아프리카 시장 진출 거점으로서의 지정학적 요충지</li><li>방산, 전기차 등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협력 수요 확대</li></ul>	<b>위협(Threat)</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무역수지 적자 해소 및 생산의 자국화를 위한 보호무역 조치와 비관세장벽 강화 가능성 존재</li><li>환율, 인플레이션 등 무역 투자에 영향을 주는 거시 경제 지표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li></ul>

### SO 전략(적극적 공격-역량 확대)

- EU·중동 시장 진출을 위한 CBAM 대응형 생산기지화 전략 추진
- 디지털·자동화 기술 기반 고부가 부품·플랫폼 공급 확대

» 글로벌 파트너링  
협력 강화

### ST 전략(차별화전략-강점 활용)

- 스마트 팩토리, 에너지 효율 설비 중심 투자로 '현지화' 및 '기술이전' 복합 투자 전략
- 현지 기업과의 기술 협력 및 공동 브랜드 전략으로 거시 경제 불안정성 헷지

» 현지의 기술 개발 및  
고부가가치 부품 관련  
협력

### WO 전략(단계적 시책-기회 포착)

- 튀르키예 정부의 전략산업(방산, 신재생에너지 등) 중심 인센티브 연계형 진출 확대
- 금융·보험·법률·물류 등 전체 벤류 체인을 아우르는 통합형 진출 협력체계 구축

»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수주

### WT 전략(방어/철수-위협 대응)

- 디지털 플랫폼 기반 비대면 협업과 원격 제어 현지 생산 모델을 통해 초기 고정투자 비용 절약
- OEM 등 위탁 생산

» 생산 비용 최적화를  
위한 현지화 전략

## 2. 진출전략

### 2026년 진출전략

#### 주요 이슈 또는 산업

#### 방산 공급망 다변화에 따른 협력 기회 증가

#### 디지털 헬스케어 및 원격 진료기기 개발

#### 기능성 화장품 소비 트렌드 확대

#### 원전 프로젝트 후속 지원 사업 등 참여 기회

#### KOTRA가 제시하는 진출전략



- 튀르키예의 방산 수출 확대와 공급망 다변화에 따른 한국 방산 기업의 협력 및 공급망 참여 기회 증가
- 드론과 스마트 무기 개발 협력 분야에서 기술 공동 개발 및 현지 생산 기반 구축

- 의료관광 성장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원격 의료기기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현지 협력 강화
- 정부의 의료기기 산업 지원 정책과 함께 R&D 투자에 대한 기회 확대

- 중동과 유럽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인한 시장의 소비 잠재력 풍부
- 최근 자연친화적이고 기능성을 강조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관련 분야 마케팅 및 유통망 진입

- 튀르키예 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자 기술에 대한 투자 지원이 증가하는 흐름에 대응하여 후속 원전 인프라 사업 참여 등의 기회 존재
- 안전 및 운영 전문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현지 인력 역량 강화, 장기적 협력 체계 구축

## 전략 ①

## 첨단 방위 산업 기술력 기반 진출 기회 확대



### 전략 수립 배경

- (현지 시장 동향 등 최근 상황) 국방 현대화와 자체 방산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시점
- (우리 기업 진출 시 강점 등 진출 Point) 필수 부품 공급과 기술 협력까지 다양한 단계의 협력 포인트 존재

#### □ 현지 동향

- 터르키예 방위 산업 지속 성장세 유지 전망
  - KAAN 전투기 개발, 스틸 돔(Steel Dome) 방공 프로젝트 등의 전략적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힘입어 부품과 시스템에 대한 해외 공급 필수
  - 특수 금속, 레이더 전자부품, 미사일 유도 부품, 엔진 하위 시스템 등에 대한 수요 견인 예상
- 터르키예 정부의 국방 현대화를 위한 적극적 투자 진행
  - 자체 방산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해외 기업과의 첨단 방위 산업 장비와 시스템 관련 기술 협력 및 수입 확대 병행
  - 방산 관련 수출 통제와 협력체계 강화 흐름에 맞춰 전략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이 부각됨

#### □ 유망 품목

- 고급 특수 강철
  - 장갑 지상차량과 해상 플랫폼에 사용되는 고급 특수 강철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음
- 광학 센서·레이더
  - 감시·표적 식별을 위한 고해상도 열화상 카메라와 특수 광학 장비, AESA 레이더 시스템 및 그 하위 부품(예시 : 송수신 모듈(T·R 모듈), FPGA 보드, 디지털 설계 아키텍처)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스틸 돔 프로젝트에서는 첨단 전자전 및 레이더 전자장비가 요구되며, 레이더가 가장 핵심적인 하위 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음
- 드론 대응 기술과 미사일 시스템
  - 드론 대응 기술, 전자파 방해 미사일 하위 시스템, 시커 헤드, 정밀 유도 전자장치와 같은 유도 미사일 하위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음
- 엔진·모빌리티 부품
  - 터르키예 내 엔진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터보제트·터보.shaft 엔진의 하위 시스템과 부품, 그리고 주행 궤도를 갖춘 지상 차량(예시 : 주력 전차(MBT), 보병 전투 차량(IFV))의 변속기와 구동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존재

## □ 진출전략

- 기술 협력 및 현지 생산 파트너십
  - 현지 주요 방산 기업과의 기술 협력을 추진하여 공동 개발 및 라이선스 생산
  - 튀르키예의 특수 환경에 맞춘 무인기와 감시 시스템 관련 통합 솔루션 제공
- 전시회·네트워킹 활용
  - IDEF(튀르키예 국제 방위산업박람회) 등 현지 방산 전시회 참여를 통한 B2B 네트워킹 기회 적극 활용
  - 전시회 인터뷰 중 스틸 돔(Steel Dome) 프로젝트의 핵심 하위 시스템인 레이더 분야에서 외국 기업의 높은 참여 가능성 확인
  - 또한, 디지털 설계에 사용되는 FPGA 보드, 유도 미사일용 탐색기(Seeker Head), 궤도형 지상 차량용 변속기 및 구동 시스템 등의 분야도 유망하게 평가

## 전략 ② 소비자 맞춤형 기능성 K-뷰티 제품으로 브랜드 이미지 형성



### 전략 수립 배경

- (현지 시장 동향 등 최근 상황 요약)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
- (우리 기업 진출 시 강점 등 진출 Point) K-뷰티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한 미백·자외선 차단 제품 등의 진출 가능성 증가

### □ 현지 동향

- 기능성·자연성분에 대한 선호 확대
  - 최근 화장품, 특히 안전한 성분과 미백, 안티에이징 등의 특정 기능 강화 제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
- 유통 채널 확대
  - 높은 수입 비용으로 인해 대부분의 수입업자는 독점 계약을 선호
  - 유통업체 다변화보다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운영하는 Gratis(gratis.com.tr) 또는 Eve(eveshop.com.tr) 등의 현지 대형 유통체인과 협력하여 시장 접근성 확대

### □ 유망 품목

- 기초 제품
  - 소비자들의 성분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특정 활성 성분을 포함하고 부작용이 적은 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
- 색조 화장품·향수
  - 현지·해외 브랜드가 메이크업과 스킨케어 효과를 결합한 제품을 출시하며 컬러 화장품 시장이 지속 성장 중
  - 향수 및 프래그ランス 제품에 대한 소비 수요가 큰 국가로, 향수, 바디 미스트, 헤어 향수 부문이 빠르게 성장 중
- 기능성 화장품
  - 자외선 차단, 주름 개선, 피부 문제 완화 제품에 대한 강한 수요가 있으며,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성분에 중점
  - 헤어케어 제품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탈모 방지 제품을 넘어 활력 증진, 손상 복구, 전문 케어 솔루션으로 헤어·두피 치료 제품군이 확대 중

## □ 진출전략

- 유통 채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각인
  - Gratis, Eve, Mion 등 대형 오프라인 유통망과의 제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통한 유통 채널 다각화
  - 시장 내 신뢰도 형성과 명확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한 단일 브랜드 및 제품 라인 간소화가 홍보에 효과적
  - 주요 도시 매장 내 체험존과 팝업스토어 운영을 통한 경험 제공 및 소비자 친화도 증진진
  - 인플루언서 마케팅, 유튜브·인스타그램 기반 체험 콘텐츠 제작을 통한 디지털 마케팅 활성화
- 기능성 제품 위주 라인업 구축
  - K-뷰티에 대한 관심도를 활용하여, 미백·주름 개선 제품 등 기능성 제품 개발을 통한 시장 진입
  - 업계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헤어 스파 트리트먼트’가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음을 확인, 모발 관리, 탈모·손상 모발 케어 제품들이 유망 품목으로 전망

### 전략 ③

### 첨단 의료기기 공급으로 헬스케어 사업 진출



#### 전략 수립 배경

- (현지 시장 동향 등 최근 상황 요약) 의료 산업의 디지털화 추진
- (우리 기업 진출 시 강점 등 진출 Point) 영상 기기와 개인 의료 기기 등의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기술 협력 및 수출 가능성 존재

#### □ 현지 동향

- 의료기기 분야 성장세
  - 튀르키예의 헬스케어 산업은 8,500만 명에 달하는 인구 증가 및 유럽·중동 지역 의료 허브로서의 전략적 역할 등에 힘입어 국내에서 가장 역동적인 산업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음
  - 시장은 소모품(26%), 진단영상장비(18%), 정형외과 및 보철(9%), 치과 장비(8%) 등의 비율로 구성
  - 튀르키예의 의료기기 수출 또한 '30년까지 연평균 성장을 4.2%를 기록하여, 총 매출 64억 4,0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보건의료 디지털화 정책 도입
  - 원격진료·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 진행 중
  - 의료 인프라 확대에 따른 고성능 진단기기, 수술용 로봇 등 첨단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 증가

#### □ 유망 품목

- AI 기반 진단기기
  - 개인 맞춤형 의료 및 예방 의료로의 전환 흐름에 맞춰, AI 기반 진단 도구 및 첨단 영상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영상·개인용 의료 진단기기 분야 시장 확대 전망
  - 특히, 튀르키예 의료기기 시장에서 가장 큰 부문인 심장학 기기 규모는 '25년에 8억 5,63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심혈관 건강 문제 증가, 병원 인프라 확충, 첨단 치료 기술 도입이 수요를 견인 중
- 임플란트·치과 재료
  - 치과용 임플란트, 재료, 엑스레이 장비에 대한 강한 수요가 있으며, 한국이 주요 공급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 진출전략

- 현지 의료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
  - 대형 병원 및 클리닉과 협력하여 맞춤형 진단과 치료 장비 공급,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 현지 의료진 대상 제품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기술지원 체계 구축
  - 원격진료, AI 진단 소프트웨어와 연동되는 의료기기 시장 확대 전망
- 품질 인증과 규제 대응
  - 튀르키예와 인근 유럽시장 CE 인증, 의료기기 관련 규정에 대한 철저한 숙지 및 관련 대응책 마련 필요
- 한국 기업 특화 분야 잠재력 보유
  - 튀르키예 국내 제조업체들이 내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긴 하나, 한국 기업들은 높은 제품 퀄리티를 기반으로 프리미엄 고객층을 겨냥하는 등 튀르키예 기업들과는 타깃 시장이 다르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보다 타깃 시장 내의 확실한 점유를 목표로 하는 것이 합리적
  - 한국 기업이 보유한 혁신적인 기술은 첨단 의료기기, 재생 의학, 바이오 기술 치료제 분야 등에서 경쟁 우위 확보 가능

## 전략 ④

## 원자력 산업 협력 강화로 터르키예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 전략 수립 배경

- (현지 시장 동향 등 최근 상황 요약) 에너지 자율화 정책의 일환으로 원자력 발전 등 부문 강화
- (우리 기업 진출 시 강점 등 진출 Point) Sinop 지역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 등 가능성 존재

### □ 현지 동향

- 원자력 발전 강화 등 에너지 자율화 정책 추진
  - Akkuyu 원전에 이어 추가적인 신규 원전 건설 및 운영 확대 계획
  - 원전 부품, 안전 장치, 운영·유지보수 기술 수요 증가
- 전략적 입지의 중요성
  -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입지로서의 원전 협력 중요성 부각

### □ 유망 품목

- 원전 핵심 부품
  - 증기발생기, 원자로 부품 등 원전 건설에 필요한 핵심적인 부품을 공급함으로써 원전 산업의 공급망에 합류할 수 있는 기회 모색 가능
- 방사선 안전장비, 원전 운영 자동화 시스템
  - 원전을 건설하는 단계 이외에 안전 관련 장비 및 교육을 제공하여 현지 인력 역량 강화 방면으로 진출 기회 모색 가능
  - 시스템 관련 기술 협력을 통한 현지 진출 기회 탐색 가능

### □ 진출전략

- 원전 건설 프로젝트 협력 증가
  - Sinop 지역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 및 연계 부품, 기술 공급 등의 계약 추진 가능성
  - 업계 관계자, SMR(소형모듈원자로) 관련 국제 협력 증가 전망
  - 터르키예 원자력산업협회(NIATR) 회장 또한 '26년 아크쿠유 1호기 가동 시작 이후 두 번째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공식 발표 예상

- 연계 및 후속 사업 관련 진출
  - 튀르키예 원자력산업협회(NIATR) 회장, 아크쿠유 2~4호기에 대한 신규 계약 가능성과 더불어, 원자로 시스템을 넘어선 보조 설비 생태계 전반으로 협력 분야 확장 전망 언급
  - 원전 가동 중 유지보수 서비스와 원격 진단 시스템 제공
  - 원전 운영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현지 인력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지원
  -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유럽 원자력 안전 규제에 맞는 제품 인증 및 안전성 확보



## 화장품

<b>선정사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류와 K-뷰티 영향으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수요 및 사용 연령층 꾸준히 확대</li> <li>한국산 화장품의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기초화장품 등으로 관심 제품군 확대</li> </ul>
<b>경쟁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니베아, 뉴트로지나, 에스티로더 등 유럽 제품이 주류이며, 국산 브랜드 또한 강세</li> </ul>
<b>진출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장품의 경우, 한국 완제품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 현지 바이어에게 부담</li> <li>OEM을 통한 현지 시장 진입과 함께 가격 경쟁력 강화, 마케팅 캠페인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 중요</li> </ul>

## 임플란트

<b>선정사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현지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업체들이 성장하며 자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와중에도, 한국산 제품은 검증된 성능과 가치로 여전히 높은 선호도를 유지</li> </ul>
<b>경쟁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일·스위스 제품이 최고급 제품으로 인식</li> <li>한국은 적절한 품질과 가격으로 중간층 시장 확보</li> </ul>
<b>진출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산 임플란트의 우수한 품질에 대한 인식으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규제 관련 지속 모니터링 필요</li> </ul>

## 조선기자재

<b>선정사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특성으로 애프터 마켓 발달</li> <li>주요 건조선은 화물선, 예인선, 여객선, 어선, 요트 등</li> <li>최근 IMO(국제해사기구) 규제로 전기·하이브리드·LNG 선박 증가</li> </ul>
<b>경쟁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박의 경우 한국이 최대 수출국이나, 부품의 경우 현지 주요 고객인 북유럽 내 인지도가 높은 독일, 미국, 일본이 최대 수출국</li> </ul>
<b>진출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도입으로 유럽 시장 수출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저감장치 부착이 필수이기에, 관련 기술 보유 기업 진출 가능성 높음</li> </ul>

## 영상진단장비

**선정사유**     • 의료관광객 증가로 인한 고급 의료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면서 검사 장비 고도화 진행 중

**경쟁동향**     • Siemens, GE 등 글로벌 기업이 높은 시장 점유율 확보 중

**진출방안**     • 고가의 필수 장비이기에 즉각적인 AS가 주요 선정 기준  
• 현지에서 직접 서비스 제공 가능한 에이전트 발굴 필요

## 원전기자재

**선정사유**     • 정부의 에너지원 국산화 추진에 따라, 발전 효율이 높고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 발전소에 관심 높음

• 제1 원전인 아크쿠유 원전 건설 중이고 제2 원전은 시놉에, 제3 원전은 트라키아 지역에 추가 건설할 예정  
• 16개 중소형 SMR(소형모듈원자로) 프로젝트 추진 중

**경쟁동향**     • 제1 원전을 러시아가 수주하여 추진 중

• 제2 원전 수주를 위해 한국, 프랑스, 미국 등과 경쟁 중

**진출방안**     • 현지에서 한국 원전 설비 기술력을 인정받아 제1 원전에 국내 기업 납품 성공 사례가  
• 발생하고 있는바, 원전 건설 수주 외에도 설비 공급 시장도 공략 가능

## 전기차부품

**선정사유**     • '25년 6월 기준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약 117% 증가

• 전문 전기차 부품, 예비 부품 및 AS에 대한 수요 증가

• 관련 서비스 생태계가 시장 확대에 발맞춰 성장 중

**경쟁동향**     • 글로벌 제조업체들과 자체 지역 공급망을 구축 중인 현지 브랜드 TOGG에 의해 구조 재편

• BYD는 '27년까지 연간 15만 대 생산 능력을 목표로 마니사에 10억 달러를 투자

**진출방안**     • 전기차는 전문적인 안전 기준과 기술이 요구되므로, 전기차 정비에 필요한 라이선스와 기술 역량을 갖춘 부품 및 AS 업체와 협력 필요

## 재생에너지 인프라 장비

<b>선정사유</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터르키예 신재생에너지 시장, 특히 태양광 부문은 정부 인센티브에 힘입어 빠르게 확장 중</li><li>관련하여, 그리드 연결, 송전 장비, 변환기 및 ESS(에너지저장장치) 관련 기술에 대한 강한 수요 발생</li><li>풍력 에너지 산업은 22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기록하며 신재생에너지 투자 전반에 걸친 강한 성장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음</li></ul>
<b>경쟁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중국 기업인 성그로우(Sungrow) 등은 대규모 프로젝트 협력을 통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시도 중</li><li>ZES와 같은 국내 기업들도 태양광 및 에너지 저장 분야에서 역할 확대</li><li>중국·독일 등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li></ul>
<b>진출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태양광·풍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신규 산업 시설 등 다양한 적용 분야를 위한 송전 시스템, 변환기, ESS 기술 등 프로젝트 기반 솔루션 공급 분야에서 진출·협력 기회 존재</li></ul>

## 레이더기기

<b>선정사유</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스틸 돔(Steel Dome)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같은 주요 프로젝트를 통해 국방, 항공우주, 모빌리티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li><li>이에 따라 레이더 전자장비와 관련 서브시스템의 수요 확대 예상</li></ul>
<b>경쟁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레이더 시장은 미국, 평가리, 체코가 집중적으로 주도하고 있음</li><li>상위 5개 공급국이 전체 수입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음</li></ul>
<b>진출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한국 기업들은 현지 업체와의 공급망 파트너십 구축 또는 합작투자 형성을 통해 효과적인 시장 진입 기회 모색 가능</li></ul>

## 자동화 공작기계(CNC)

<b>선정사유</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디지털·친환경 전환을 겪으며 자동화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li><li>한국은 터르키예 CNC 기계 최대 공급국으로, '22년 24%였던 수입시장 점유율이 '24년 30%로 상승함</li><li>첨단 산업이 확장되고 EU 친환경 목표에 맞춰 제조업이 전환됨에 따라 자동화가 주요 산업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음</li></ul>
<b>경쟁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한국, 일본, 독일, 대만 업체가 주요 공급자</li><li>특히 항공우주·자동차 등 고정밀 산업 분야에서는 수입 기계를 선호하고 있음</li></ul>
<b>진출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한국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 강화를 위해 현지 제조 또는 기술 제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li><li>터르키에는 유럽·중동·북아프리카(MENA) 등 인접 지역 진출의 교두보 역할도 할 수 있음</li></ul>

## 반도체

- |             |  |
|-------------|--|
| <b>선정사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기차, 5G 기술, IoT, 산업 자동화에 대한 투자 확대로 반도체 수요 증가 중</li><li>• 튀르키예 반도체 시장은 '25년 17억 9,000만 달러에서 '30년까지 44억 3,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AI 칩 시장만 해도 '25년에 7억 4,8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li><li>• IoT 기기, 스마트홈 기술, 소비자 전자제품의 AI 통합에 대한 수요 증가가 시장 확대를 견인하고 있으며, 정부의 디지털 혁신 지원 정책도 이러한 성장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li></ul> |
| <b>경쟁동향</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중국과 대만이 현재 튀르키예 반도체 수입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li><li>• 한국은 '22년 2%에서 '24년 7%, '25년 7월 기준 8.5%로 점유율을 확대하며 제3의 주요 공급국으로 부상함</li></ul>  |
| <b>진출방안</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한국 기업들은 전기차-IoT용 전력 IC, AI 가속기, 혼합 신호 장치 등 고부가가치 반도체를 공급함으로써 이러한 흐름을 활용할 수 있음</li><li>• 또한, 정부 인센티브를 활용하고 튀르키예의 소비자 전자 제조업체, OEM, EMS 업체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음</li></ul>  |

## 첨부 2

# 수출 유망 품목(서비스)



## 데이터 센터

- |             |   |
|-------------|---|
| <b>선정사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데이터 수요 증가에 따른 인프라 확대 및 관련 수요 증가 전망</li><li>정부 주도 전자정부, 스마트시티 구축 등이 추진 중이며, 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하며 데이터 중요도 상승</li></ul>  |
| <b>경쟁동향</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글로벌 기업 Equinix가 확장을 진행한 한편, Turkcell, Türk Telekom, KoçSistem 등 현지 주요 기업들이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li><li>튀르키예의 공영 위성 운영사인 Türksat은 전자정부(e-Government)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 중 하나를 건설 중이며, 현지 전자상거래 플랫폼 Trendyol과 Castle Investments는 앙카라에 차세대 데이터센터를 개발하고 있음</li></ul> |
| <b>진출방안</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보안과 관련된 인증 취득과 규제 통과를 위해 현지 유력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진출 고려</li></ul>  |

## 스마트시티구축 솔루션

- |             |   |
|-------------|---|
| <b>선정사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매년 100만 명씩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 가속화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과 수요 증가</li><li>중앙정부 주도로 국가 스마트시티 전략을 수립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전략과제와 로드맵 수립</li></ul>                |
| <b>경쟁동향</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영국, 싱가포르 등 스마트시티 선진 사례 구축 국가 등에서도 현지 지방자치단체에 솔루션 제공 중</li><li>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 교통·공공 서비스의 스마트·친환경 전환 프로젝트를 지원받기 위해 유럽 부흥개발은행(EBRD) 자금을 신청하고 있음</li></ul> |
| <b>진출방안</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현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과 협업을 통해 스마트시티 구축 솔루션 제공</li></ul>   |

## 콘텐츠

- |             |  |
|-------------|--|
| <b>선정사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K-팝,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에 대한 관심증 확대 중</li><li>OTT, 스트리밍 서비스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인한 콘텐츠 전파력 강화</li></ul> |
| <b>경쟁동향</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각종 OTT 등장으로 튀르키예 자체 콘텐츠도 더욱 다양해지며 중동·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부상 중</li></ul>                            |
| <b>진출방안</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현지 트렌드 파악·분석, 모바일 인터넷 환경 등을 고려해 철저한 현지 맞춤형 전략 수립 필요</li></ul>                              |

## 핀테크

- |             |  |
|-------------|--|
| <b>선정사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튀르키예 핀테크 산업은 디지털 결제, 오픈 뱅킹, 젊은 인구 증가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 중</li> <li>금융 포용성과 대체 금융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디지털·AI 기반의 고도화된 솔루션을 보유한 한국 기업에 유망한 진출 기회 제공</li> <li>핀테크 기업의 53%가 디지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디지털 대출(19%), 인슈어테크(Insurtech), 웰스테크(Wealthtech) 등 신호 분야가 성장 중</li> </ul> |
| <b>경쟁동향</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튀르키예 핀테크 시장은 결제, 뱅킹 기술, 블록체인, 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기업들이 진입 중</li> <li>기존 시중 은행들도 인큐베이터와 벤처캐피탈 펀드를 설립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li> <li>디지털 금융 분야에서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현지 기업들이 규제 환경에 대한 이해도와 적응력을 바탕으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음</li> </ul>   |
| <b>진출방안</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지 기업·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 체결 또는 자회사 설립을 통해 튀르키예의 규제 체계에 대한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장 진입장벽 완화 가능</li> <li>현지 인허가와 데이터 보호 요건에 부합하는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디지털 결제, AI 기반 금융 솔루션, 블록체인 기술 등의 분야 유망</li> <li>지리적 이점으로 인접 지역 진출까지 확대 가능</li> </ul>  |

## 디지털헬스케어

- |             |   |
|-------------|---|
| <b>선정사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튀르키예 보건의료 부문은 e-Nabız 등 전국 단위의 건강 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 본격화</li> <li>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헬스케어 관광 수익 확대 등의 요인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에 대한 수요 빠르게 증가 중</li> <li>원격의료, AI 기반 진단, 디지털 치료제, 원격 모니터링 솔루션 등의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보건부는 '25년부터 1차 진료기관과 병원을 연결하는 신규 통합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li> </ul> |
| <b>경쟁동향</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치 홀딩(Koç Holding), 사반지 벤처스(Sabancı Ventures), 에자지바şı(Eczacıbaşı, Evital) 등 대형 현지 그룹이 활발히 투자 중</li> <li>병원 정보 시스템을 제공하는 통신사 터크셀(Turkcell)도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li> <li>8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원격의료, 생명공학, 정신 건강, 웨어러블, 사물인터넷(IoT)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음</li> </ul>                         |
| <b>진출방안</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라이선스 요건 준비와 튀르키예 데이터 보호법 준수를 철저히 해야 함</li> <li>병원, 보험사, 통신사와의 협력이 핵심이며, AI 기반 진단, 원격의료 플랫폼, 통합 병원 IT 솔루션 분야에서 기회 존재</li> </ul>   |

### 첨부 3

##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 '26년 터르키에 지역 KOTRA 주요사업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한국-터르키예 프로젝트 협력 강화	터르키예 상담회(SAHA)와 국내 전시회(KODAS) 연계 첨단 산업 및 방산 관련 현지 진출 및 기술 제휴 컨설팅 터르키예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및 협력 지원	연중/이스탄불
GVC 진입 위한 파트너링 사업	현지 대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품목별 전문 사절단·상담회 개최	연중/이스탄불
수입 수요 증가 유망 품목 타깃	조선해양기자재 무역사절단 에너지·전력기자재 사절단 이스탄불 포장 전시회 현지 메이저 온라인 플랫폼 협력, K-소비재 판촉전 DX 기반 수출초보기업 지원 사업	3분기/이스탄불 3분기/이스탄불 10월/이스탄불 상·하반기/이스탄불 연중/이스탄불

## 첨부 4

#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제36차 NATO 정상회의 개최	7~8월	양카라 대통령궁 개최 예정
G20 정상회의 참석	연내	미국 플로리다주 개최 예정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튀르키예-영국 FTA 협상	'25년 7월(1차 라운드)	진행 중
튀르키예-GCC FTA 협상	'25년 4월(3차 라운드)	진행 중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이스탄불 치과 기자재 박람회(IDEX)	4월	
튀르키예 방산 전시회(SAHA Expo)	5월	
이스탄불 화장품 전시회(Beauty Istanbul)	5월	
튀르키예 원전 에너지 서밋(NPPES)	7월	
이스탄불 자동차 부품 전시회	7월	
이스탄불 식품 전시회(World Food Istanbul)	12월	

##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이지연	과장	이스탄불무역관	+90 0212-325-3646(112)	jylee@kotra.or.kr
2	Bahar Sener	대리	이스탄불무역관	+90 0212-325-3646(118)	baharsener@kotra.or.kr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026

# 튀르키예 진출전략



ISBN : 979-11-402-1564-5 (95320)